2016년 Census 자료 요약

#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문화적 다양성이란?

문화적 다양성은 개인의 출생국가, 혈통, 부모의 출생국가, 사용언어, 호주 원주민이나 토레스 스트레이트섬 인종 여부, 소속 종교와 관련된 개념이다. Census는 이러한 호주사회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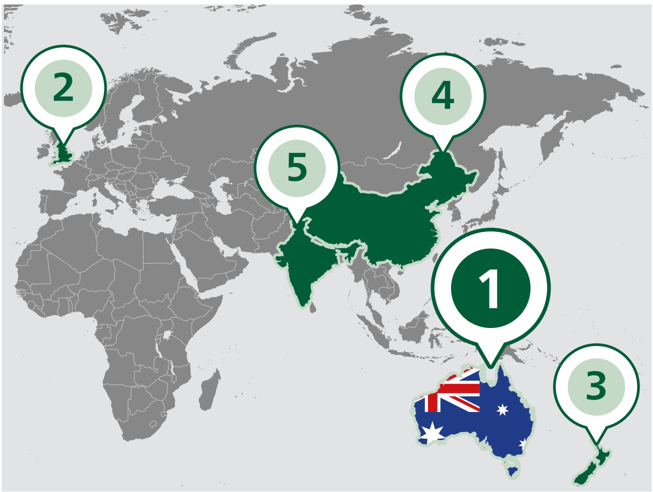
## 출생국가

2016년 Census 결과에 따르면 호주 인구의 3분의 2 (67%)가 호주 출생이며, 6,163,667명의 해외출생자들 중 거의 5분의 1 (18%)이 2012년 초반이후에 호주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다음으로 가장 높은 출생지는 아직도 영국과 뉴질랜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인도에서 태어난 해외출생 인구의 비율이 2011년 보다 증가했다 (각각 6.0%에서 8.3%, 5.6%에서 7.4%로 증가).

해외출생지 최고 10개국 중 필리핀이 8위에서 6위로 증가하여 이탈리아와 자리를 바꾼결과를 보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스코틀랜드 대신) 해외출생지 최고 10개국에 포함되어 호주 인구의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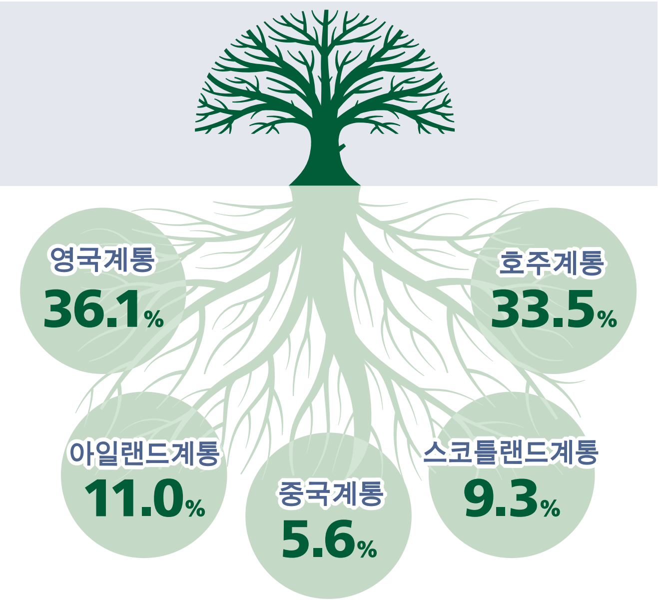

| 해외출생지 최고 5개국 | | 2011년 | 2016년 |
|---|---|---|---|
| 국가 | | % | |
| 1 | 호주 | 69.8 | ▼ 66.7 |
| 2 | 영국 | 4.2 | ▼ 3.9 |
| 3 | 뉴질랜드 | 2.2 | 2.2 |
| 4 | 중국 | 1.5 | ▲ 2.2 |
| 5 | 인도 | 1.4 | ▲ 1.9 |

## 혈통

혈통은 개인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속해있는 문화그룹을 말한다.

2016년 Census에서는 300여개의 개별적인 혈통이 조사되었는데 가장 많은 혈통계로 영국계 (36%)와 호주계 (34%)가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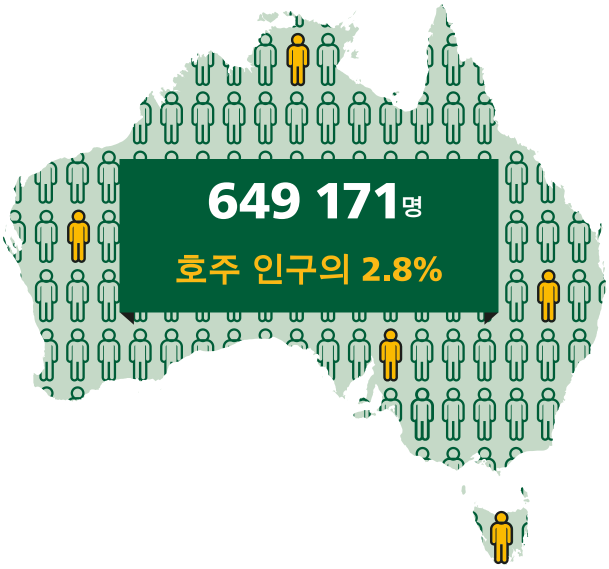
최다 10개 혈통 중, 영국계와 호주계 다음의 순차 6개도 유럽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개 혈통은 중국계 (5.6%)와 인도계 (4.6%)가 차지했다.




## 언어

2016년 자료에 의하면 호주 가정에서 사용되는 개별적인 언어는 300여개로 집계되었는데, 호주인의 5분의 1 (21%)이상이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다.

##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스트레이트섬 출신




2011년 이후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스트레이트섬 인종의 인구가 호주 인구의 2.5%에서 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스트레이트섬 인종 인구 자료 요약지에 나와 있다.

## 종교

2016년 호주의 주요 종교는 그리스도교로 나타났다 (52%).

| 소속 종교 | | 인구 (단위:1,000명) | 인구 (%) |
|---|---|---|---|
| 그리스도교 | | 12 201.6 | 52.1 |
| 기타 종교 | 이슬람교 | 604.2 | 2.6 |
| | 불교 | 563.7 | 2.4 |
| | 힌두교 | 440.3 | 1.9 |
| | 시크교 | 125.9 | 0.5 |
| | 유대교 | 91.0 | 0.4 |
| | 기타 | 186.7 | 0.8 |
| | 총계 | 1 920.8 | 8.2 |
| 무교[a] | | 7 040.7 | 30.1 |
| 호주인구[b] | | 23 401.9 | 100.0 |

a 무교에는 무신론이나 기타 영적인 믿음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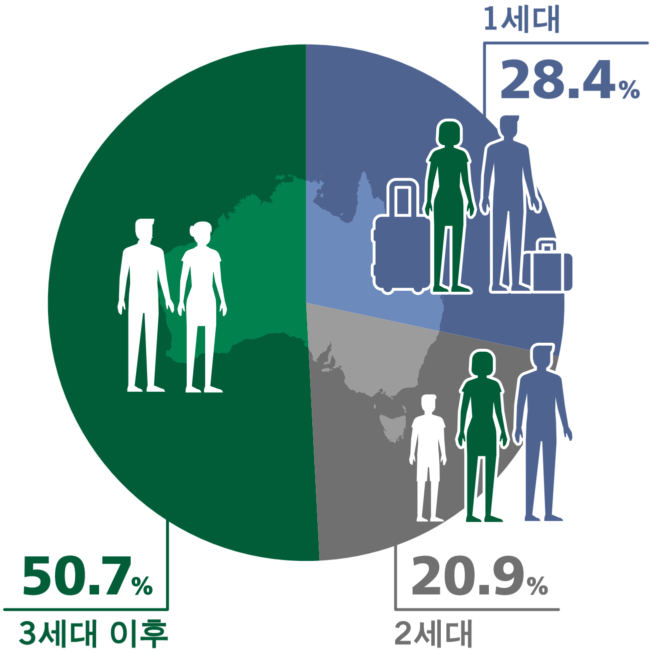
b 종교에 관한 질문은 선택항목이므로 총 호주 인구수와 각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2016년 Census에서 이슬람계 인구는 전체 인구의 불과 2.6%이지만 종교로는 그리스도교 다음으로 이슬람교가 두번째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불교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따르고 있다 (2.4%).

'무교' 인구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호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증가했다 (22%에서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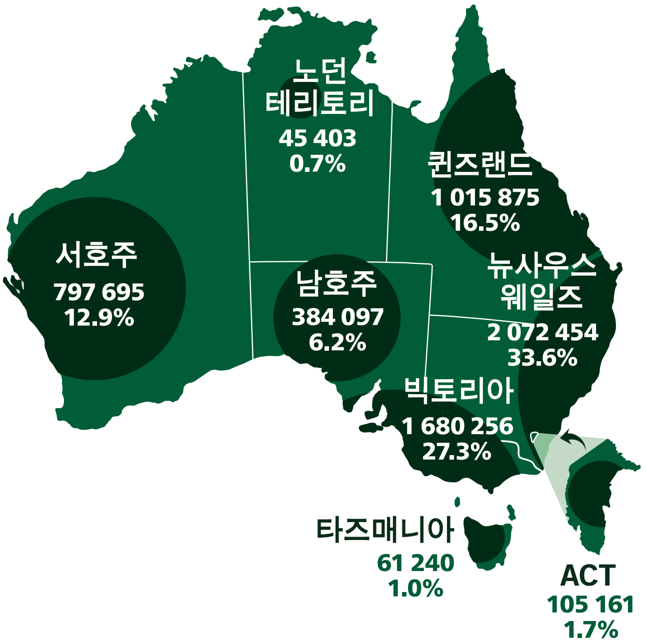
## 호주 이민 세대

2016년에는 호주 인구의 거의 절반 (49%)을 차지하는 인구가 해외 출생 (호주 이민 1세대)이거나 한쪽이나 양쪽 부모가 해외출생 (호주 이민 2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민자 거주지

2016년에도 호주의 해외출생 인구가 거주지로 가장 선호하는 주/테리토리는 뉴사우스 웨일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72,454명, 해외출생 인구의 34%).




2016년에는 해외출생 인구의 83%가 수도권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호주출생 인구는 61%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드니가 가장 많은 해외출생 인구의 거주지로 나타났다.

자료: 모든 시각자료는 2016년 Census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기본한 것이다. 위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는 Census 사전을 참조하시고, 2016년 Census 결과 발표와 발행물은 **www.abs.gov.au/census**에서 찾아볼 수 있다.